

김현미 장관 “올해는 철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”

- 철도의 날 기념식… 유공자 포상 등 철도인 격려 -

□ 2020년 철도의 날* 기념식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, 김상균 한국철도협회장,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, 권태명 (주)SR 사장 등 철도업계 관계자들과 조용천, 윤관석, 장철민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.26(금) 오후 3시 웨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개최되었다.

* 기간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기념일. 2018년부터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기존 철도의 날(9.18)을 우리나라 최초 정부의 철도부서 창설일(1894.6.28)로 변경하여 개최

□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, 한국철도시설공단, 한국철도공사, (주)SR이 공동주관하며, 한국철도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기념식은 “철도의 혁신과 성장,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철도 2020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.

○ 본 행사에서는 코로나-19 확산방지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24시간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철도인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와 철도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철도인 130명에 대한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시상* 등이 진행되었다.

* 훈장 1명, 포장 2명, 대통령표창 3명, 총리표창 4명, 장관표창 1명

□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철도발전을 이끌어 온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, “철도 분야가 국민들께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철도 관련 기관들이 더욱 책임있고 공정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0. 6. 26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□ **개최목적**

- 「철도의 날」 기념식을 통해 국가 주요 교통수단인 철도의 위상을 높이고 철도 종사자 및 관계자 노고 격려

* 2018년부터 일제강점기에 지정(1937)된 기존 철도의 날(9.18)*을 우리나라 최초 정부 내 철도부서 창설일(1894.6.28)로 변경하여 개최

□ **행사계획**

- 時/所 : 2020.6.26(금) 14:50~16:00,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(구로)
- * '20.6.28(일)이 휴일임을 고려하여 6.26(금) 개최

- 행사주최 : 국토교통부

- 주 관 : 철도공사, 철도공단, (주)SR ※ 한국철도협회 후원

- 행사슬로건 :

“ 철도의 혁신과 성장,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철도 2020 ! ”

- 행사내용 : 기념식 행사, 포상·치사, 기타 부대행사 등

- 주요 참석자 : 국토부장관, 국회의원, 한국철도협회장, 한국철도공사·(주)SR 사장 등 철도관계자 약 150여명

□ **세부일정**

구분			주요내용
14:50~15:00	10분	식전행사	• 행사안내, 주요내빈 입장 및 소개
15:00~16:00	60분	공식행사	• 개식선언, 국민의례 • 철도의 날 응원영상(덕분에 챌린지) • 기념사(한국철도협회장), 환영사(주관기관장), 축사(국회의원) • 유공자 포상(정부포상 10, 장관표창 1) • 치사(국토교통부 장관) • 퍼포먼스 • 폐식